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월 26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요한복음 3장 29-34절

설교제목 : “대속”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란 과정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오늘은 구원의 교리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았다고 합니다.(29절) ‘보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블레포’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능력을 가리키지만, **자세히 살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에 대한 이해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나아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짧은 인식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가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지고가는’에 해당하는 ‘아이로’는 ‘없이하다’, ‘제거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이하는, 제거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이러한 죄의 상태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골1:21, 고후5:18, 고후5:20) 결국 구원의 핵심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처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화해가 이루어지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죄가 어떻게 ‘아이로’되어집니까?** 죄가 아이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죄값을 치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생명의 값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생명 대신 짐승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룹니다. 이러한 희생 제물로 대신 값을 치루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속의 희생제물을 **화해의 헌물**이라고 합니다. 화해의 헌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암노스**’인데, 이 단어는 유대인의 의식 속에서 독특한 이해가 있는데, 희생제물을 염두한 단어입니다. ‘**암노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케베쉬**’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거의 희생제물의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즉 ‘**암노스**’란 ‘**희생제물**’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양**이란 표현은 예수께서 자기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가 대속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아이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요일2:1-2) 두 번째로, 예수가 누구이시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까?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30절)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문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에 오염된 존재이기에 어떤 사람도 죄를 온전히 제거하는 대속의 화해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어떠한 존재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죄사함(눅

24:47)과 구속을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31절)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결코 예수라는 인물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결코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인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32-33절) 우리가 예수에 대한 바른 영적 지각이 열려서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듬어 찾아 연구한다고 해서 그를 알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린도전서 12:3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로 인지 믿고 알게 된 것은 이미 그 속에 성령님의 작용이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반증이 됩니다. 구주로 고백하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계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 예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30절을 보면, 원문에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자신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해의 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에 대한 이해의 문이 열려서 내 삶에서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참된 구원자이시오 주인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사라지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나아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인식 속에 드러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 2) 예수가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까?
- 3) 요한은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